

Special
Theme

03

재물보험의 발전방안

글 양희산 /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부총장



1. 머리말

손해보험은 저축성 형태인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높은 성장에 힘입어 최근 5년간 보유보험료 기준 평균 1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비 등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주로 상해·질병 위험을 보장하는 제3보험 분야인 장기손해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손해보험회사가 외형성장을 실현하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장기손해보험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손해보험의 고유영역인 재물보험을 비롯한 소위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010년에는 9.5%로 축소되어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손해보험산업에서 일반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은 마케팅 채널의 수입증대 욕구와 손해보험회사의 외형성장 추진 등에 따른 장기손해보험의 확대전략, 상대적으로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관심부족과 언더라이팅 기반 붕괴로 신규시장 개척과 신상품 개발이 저조한데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해보험 고유의 전통적인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이 약화되는 등 그 입지가 흔들림에 따라 손해보험산업 구조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과 기준에 부합하는 손해보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손해보험이 갖는 사회안전망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 중심의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간의 균형적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현황

우리나라 GDP대비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일반보험의 보험료 비중은 미국이 2.7%, 독일이 2.2%, 일본이 1.0%인 것에 비하여 한국은 0.5%로 나타나 일반보험이 국가, 기업 및 가계에의 침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율상으로도 보더라도 한국의 일반보험 침투도에 비하여 미국은 5배, 독일은 4배, 일본은 2배 이상 일반보험이 활성화되었다고 하겠다.

〈표 1〉 GDP대비 일반보험료 비중(2010)

(단위: %)

구분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일반	59.0	58.7	45.3	12.2
자동차	41.0	41.3	54.7	24.0
GDP대비 일반비중	2.7	2.2	1.0	0.5

손해보험 일반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005년도에 16.9%이던 것이 매년 조금씩 줄어 2010년도에는 12.2%를 보임으로써 2005년도 대비 4.7%p 감소하였다. 일반보험의 보유 보험료는 2010년도에 3조4,238억원으로 손해보험의 7.3%를 차지하여 원수보험료 기준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손해보험이 위험성이 큰 대형 물건으로 구성된 기업성 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재보험출재 비율이 장기손해보험보다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원수 보험료	일반 (비중)	42,092 (16.9)	46,711 (16.1)	47,890 (14.4)	53,755 (14.6)	58,451 (13.6)	62,892 (12.2)
	자동차 (비중)	87,890 (35.2)	96,492 (33.4)	108,094 (32.6)	109,371 (29.7)	112,224 (26.1)	124,134 (24.0)
	장기 (비중)	119,552 (47.9)	146,102 (50.5)	175,563 (53.0)	205,004 (55.7)	258,949 (60.3)	330,126 (63.8)
	계	249,534	289,305	331,547	368,131	429,624	517,152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은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최근 5년간 2007년도에 1.4%로 낮은 성장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도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양호한 이익을 실현하였다. 손해율 면에서도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반 손해보험의 경영지표는 연도별로 다소 기복은 있으나 성장률, 수익성, 손해율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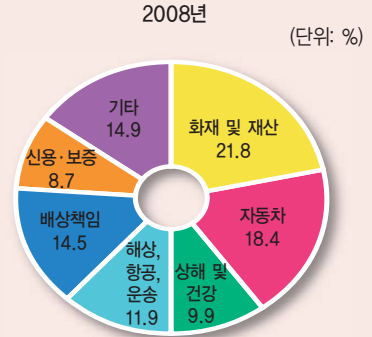
〈표 3〉 일반손해보험의 경영지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성장률(보유기준)	11.5%	1.4%	14.6%	7.9%	8.6%
보험영업이익 (보증제외)	2,717억원	1,935억원	-531억원	519억원	1,532억원
경과손해율 (보증제외)	49.0%	54.4%	72.1%	63.6%	65.6%

3. 주요국의 손해보험 실태 분석

가. 영국

연도별 주요 종목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은 2004년도 22.2%에서 이후 4년간 20%를 하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이 가장 큰 화재 및 재산보험은 22% 수준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과 해상·항공·운송보험은 지난 5년 동안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용보험은 화재보험과 같이 9%~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보험종목별 구성비 - 영국

나. 일본

연도별 주요 종목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4%를 약간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재보험 역시 17%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상해보험은 2006년도 15.2%를 정점으로 매년 약간씩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종목에는 해상·항공·운송보험, 동산종합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표 4〉 연도별 주요 종목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 일본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화재	17.1	16.9	17.6	18.0	17.0
자동차	54.5	54.7	54.1	54.2	54.7
상해	15.2	14.5	13.9	13.2	13.4
해상·항공·운송	3.9	4.2	4.0	3.5	3.6
배상책임	5.1	5.3	5.5	6.1	6.1
동산종합	1.2	1.2	1.2	1.1	1.1
노동자재해보상	0.7	0.8	0.7	0.7	0.6
비용·이익	0.5	0.5	0.9	1.3	1.6
기계, 건설공사	0.9	0.9	0.9	0.9	0.8
신용·보증	0.5	0.5	0.6	0.6	0.6
기타	0.4	0.4	0.5	0.5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적립보험)	(11.2)	(10.1)	(9.2)	(8.2)	(7.9)

다. 독일

연도별 주요 종목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화재보험은 2007년도까지는 36%를 넘는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8년도에는 상해 및 건강보험의 약진에 따라 그 점유율이 10%p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자동차보험은 2008년도에 오히려 그 이전 연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배상책임보험과 신용·보증보험은 점유율이 최근 연도에 올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항공·운송보험은 지난 5년 동안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연도별 주요 종목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 독일

(단위: 백만유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화재 및 재산	37.4	37.7	38.7	36.0	25.3
자동차	20.4	19.7	18.8	19.3	21.9
상해 및 건강	24.4	25.5	25.9	28.1	33.5
해상·항공·운송	4.0	4.3	4.0	3.4	3.9
배상책임	8.6	8.6	8.4	8.6	9.8
신용·보증	2.5	1.6	1.6	1.7	2.0
기타	2.7	2.6	2.6	2.9	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프랑스

연도별 주요 종목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화재보험 및 재산보험, 자동차보험은 점유율이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 들어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상해 및 건강보험은 2006

〈표 6〉 연도별 주요 종목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 프랑스

(단위: 백만유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화재 및 재산	22.9	22.8	17.0	18.6	22.8
자동차	29.2	28.5	19.7	21.4	26.3
상해 및 건강	20.2	20.9	41.5	37.1	23.4
해상·항공·운송	1.8	1.8	1.2	1.2	1.6
배상책임	6.3	6.6	4.9	5.7	7.2
신용·보증	3.3	3.4	2.6	2.9	3.6
기타	16.3	16.0	13.2	13.1	1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년도에 41.5%까지 도달하였다가 2008년도에는 23.4%로 대폭 감소하였다. 해상·항공·운송보험, 배상책임보험, 신용·보증보험은 점유율의 변동 폭이 연도마다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우리나라 재물보험의 발전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는 장기손해보험에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재물보험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소홀하여 각 분야별 언더라이팅 인력의 양성과 기법의 함양에 노력하지 않아 언더라이팅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이다. 분야별 언더라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언더라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언더라이터로서의 경력관리 프로그램의 시행 등 회사의 분위기 진작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던 언더라이터의 양성 분위기는 1983년 자동차보험의 다원화 정책과 지점 중심의 장기보험 판매 증대 정책에 매몰되어 우수 언더라이터를 영업 현장으로 내몰고, 언더라이터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훼손된 언더라이터 양성제도와 관리프로그램은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하였고, 재물보험 등 일반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악순환을 거듭하는 실정에 놓여있다. 또한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언더라이터로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언더라이터 기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력관리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상당한 애로를 보이고 있다. 언더라이터로서 교육을 받은 인력도 부서장이나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영업부서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분야별로 전문적인 언더라이터가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들이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고도의 지식기반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계로서는 분야별 언더라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개척분야가 보이지 않고, 자신이 아는 분야만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손해보험의 영위를 위해서는 물건별 요율 산출과 적정 보유 및 분산의 결정 그리고 사고발생 시 전문손해사정 기술의 함양 등이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일반보험은 전통적인 상품만을 가지고는 시장 확대가 어렵다.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과감히 공략하는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일반보험 예컨

대, 화재보험에 연관된 시간요소보험(time element insurance)인 기업휴지보험, 풍수해보험 특약 등 결과적 손해나 대형 자연재해 손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선박보험이나 항공보험에서는 시추선관련보험이라든지 균함 및 한국산 훈련항공기 등의 시운전기간동안의 위험담보 보험으로 확장 인수하여야 한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난위험과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험화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인수실적이 부진한 연구실험 장비 및 완성토목공사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험의 인수에는 종래의 위험처리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인 수방식과 담보력의 확충 및 재보험방식이 필요하며, 요율산정에 고도의 기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보험업계의 언더라이팅 능력과 손해사정 기술로는 이와 같은 위험의 인수 및 손해사정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보험업계는 획기적으로 언더라이팅기법을 개발하고 손해사정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FPA의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사정과 화재사고원인 조사 기법 등은 매우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업계는 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요율산출에 있어서도 원수보험사가 스스로 다양한 통계를 집적하여 자체적인 요율산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의 과제이다. 한편 재물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내 풍수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보험가입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